

인비, 승부처 마다 '무서운 집중력' 더욱 빛났다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
 골프대회 최종순위

1 박인비	-12	276 (69 73 69 65)
2 고진영	-9	279 (68 71 69 71)
3 유소연	-8	280 (67 72 73 68)
리디아 고		(66 73 72 69)
5 수잔 페테르센	-7	281 (68 69 72 72)
6 테레사 루	-6	282 (68 71 69 74)
7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5	283 (69 72 73 69)
미야자토 미카		(68 72 70 73)
9 이민지	-4	284 (69 72 70 73)
에이미 볼든		(71 74 68 71)
멜리사 라이드		(73 70 69 72)

박인비, LPGA 사상 7번째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14번홀 7m 환상 이글... 초반 부진 추격의 발판
 3타차 앞서가던 고진영, 16번홀 더블 보기 '자멸'
 박 "에비앙 챔피언십도 우승 '슈퍼그랜드 슬램' 꿈"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통산 7번째로 여자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3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탄베리 리조트 에일사 코스(파72·6410야드)에서 열린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이글 1개,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박인비는 2위 고진영(20·넥스)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5억2000만원)다.

2008년 US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2013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US오픈을 휩쓸었고 이번에 브리티시오픈 우승컵까지 품에 안으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대기록을 세웠다. 박인비의 이날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20개 대회 가운데 12승을 기록, 역대 한 시즌 한국 국적 선수 최다승 기록도 세웠다. 종전에는 2006년과 2009년의 11승이 최다였다. 박인비는 13번 홀(파4)까지 선두 고진영에게 3타 차로 뒤져 올해도 브리티시오픈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메이저 대회 4연승에 도전했던 2013년,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린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박인비의 집념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박인비는 14번 홀(파5)에서 7m 가까운 거리에서 이글 퍼트를 성공해 한꺼번에 두 타를 줄였고 13번 홀에 있던 고진영은 한 타를 잃으면서 순식간에 동물이 됐다. 고진영도 파5 홀인 14번 홀에서

반격을 노렸으나 파에 그쳤고 오히려 박인비가 16번 홀(파4)에서 한 타를 더 줄여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승부가 갈린 것은 고진영이 16번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했을 때였다. 고진영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개울로 향하면서 박인비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은 사실상 확정됐다. 박인비는 우승을 확정된 뒤 “2,3번 홀 연달아 버디를 할 때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았지만 4.5번 홀 연속 보기를 하고 나서는 ‘올해도 어려워 지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치렀더니 이후 버디가 많이 나왔다”며 “에비앙 챔피언십을 우승해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루려면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은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며 메이저 대회 우승의 꿈을 부풀렸던 고진영은 9언더파 279타로 준우승에 만족했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나란히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올해 한·미·일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전인지(21·하이진코)는 최종합계 4오버파 292타, 공동 31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인비는 2015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자로도 확정됐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이 남아있지만 이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만 두 차례 우승한 박인비가 이 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신설된 이 상은 재미동포 미셀 위가 첫 수상자였다. /연합뉴스



“우승이야” 박인비가 3일 오전 (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트럼프 탄베리리조트 에일사 코스에서 끝난 브리티시여자오픈 4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퍼팅 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머·매길로이도 못 이룬 ‘커리어 그랜드 슬램’

4대 메이저대회 석권 박인비 포함 여자는 7명

골프 그랜드 슬램은 4대 메이저 대회 모두 석권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현재 여자 골프의 경우 메이저 대회가 아나 인스퍼레이션, PGA 위민스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등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4개를 제패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룬 선수는 총 7명이다.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3일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제패하며 소렌스탐 이후 12년 만에 7번째 ‘커리어 그랜드 슬램’로 이름을 올렸고 그에 앞서서는 루이스 서그스(1957년), 미키 라이트(1962년), 팻 브래들리(1986년), 줄리 잉크스터(이상 미국·1999년), 카리

웨브(호주·2001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2003년) 등 경쟁한 이름들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룩했다. ‘골프의 전설’로 불리는 아널드 파머(미국)도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지 못해 그랜드 슬램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 남자골프 세계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아직 마스터스 그린 재킷이 없다. /연합뉴스

6연승 찍은 KIA...이젠 체력과의 싸움

한화전 '끝내기 비디오 판독'...오늘부터 3연속 2연전

연승 기간 선발·불펜진 체력 바다...집중력 있는 승부 필요



5위에 도전하는 '호랑이 군단'에게 필요한 것은 선발의 이닝, 상당하다. 9회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던 점점의 연속, 불펜에 과부하가 걸렸다. 6승에서 선발승은 단 1승. 4경기에 투입된 '불펜의 소금' 김광수가 3승1홀드, '력키가이' 에반이 2승1홀드를 가져갔다. 최고참 최영필이 3경기 연투에 나섰다, 마무리 최영필이 3경기 연투에 나섰다, 마무리 최영필이 3경기 연투에 나섰다, 마무리 최영필이 3경기 연투에 나섰다. SK·한화를 상대로 한 한여름 소나기 같은 시원한 질주였다. 1000경기 출장을 기념하는 김원섭의 끝내기 자축포로 시작된 승리 행진은 8월2일 '끝내기 비디오 판독' 속에 6연승까지 이어졌다. 5할 승률에 복귀하면서 SK와 공동 6위가 됐다, 5위 한화와는 0.5게임차다. 어느 경기 하나 빼어놓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게임이 계속됐다. 6연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지만 연승 기간 피로도가

회복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방마님들의 힘싸움도 공격에 불을 붙였다. 장총고 1년 선후배 백용환과 이흥구가 주머니 받거리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최근 분위기로는 이번 주 팀 3500출런의 주인공도 탄생할 전망이다. 남은 홈런은 6개다. 문제는 체력이다. 짐뎀 더위 속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주말 3연전을 치르면서 불펜은 물론 타자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4일부터 2연전 일정이 시작된다. 4·5일 목동에서 넥센을 상대하는 KIA는 5·6일 안방에서 kt와 대결을 갖은 뒤 마산으로 가 NC와 만난다. KIA는 이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 한화와의 원정이 끝난 뒤 곧장 목동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2연전길, 연승 후유증을 막기 위해 집중력 있는 승부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회복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방마님들의 힘싸움도 공격에 불을 붙였다. 장총고 1년 선후배 백용환과 이흥구가 주머니 받거리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최근 분위기로는 이번 주 팀 3500출런의 주인공도 탄생할 전망이다. 남은 홈런은 6개다. 문제는 체력이다. 짐뎀 더위 속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주말 3연전을 치르면서 불펜은 물론 타자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4일부터 2연전 일정이 시작된다. 4·5일 목동에서 넥센을 상대하는 KIA는 5·6일 안방에서 kt와 대결을 갖은 뒤 마산으로 가 NC와 만난다. KIA는 이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 한화와의 원정이 끝난 뒤 곧장 목동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2연전길, 연승 후유증을 막기 위해 집중력 있는 승부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드림세이브' 세번째 기부

KIA 윤석민 등 동참...김재현·나현 남매에 1600만원 전달

프로야구 세이브로 만드는 '드림 세이브(Dream Save)'의 세 번째 기부가 이뤄진다.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알보젠 코리아,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드림 세이브'의 세 번째 후원 아동인 김재현(가명, 8세)·나현(가명, 5세) 남매에 대한 후원 목표액 1600만원이 달성됐다. '드림 세이브'는 2015시즌 기록되는 1세이브마다 20만원을 적립, 의료 취약 계층 어린이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앞서 두 차례 목표 후원금이 적립되면서 기부가 이뤄졌다. 이번에는 5월30일에 이뤄진 2개의 세이브를 시작으로 지난 1일 잠실구장에서 나온 삼삼 임창용의 세이브까지 총 80세이브가 누적되면서 1600만원의 목표 후원금이 채워졌다. 세 번째 후원 남매의 경우 각각 자폐증과 장기 기형으로 수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적립된 1600만원의 후원금은 남매의 치료비와 수술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원된다. KIA 마무리 윤석민은 넥센 손승락, NC 임창민과 1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적립했다. 특히 16경기에서 10세이브를 만든 윤석민은 가장 적은 경기 수에 나와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됐다. '드림세이브'의 네 번째 후원 아동은 뇌병증에 이르기까지 3살 어린이로, 후원 목표액은 150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